

박근혜, 징역 25년 · 벌금 200억형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4년에서 1년 · 벌금 180억에서 20억 각각 늘려 “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 시장경제 왜곡 · 범행 모두 부인하며 반성 안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합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연맹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합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

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200억형 선고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안종범, 6년→5년 감형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범행,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시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태풍에 집 무너져’ ... 태평동 60대 여성 매몰됐다 구조돼

지난 24일 오전 7시24분께 제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주택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이모(68·여)씨가 무너진 잔해에 매몰됐다. 한 행인은 “사람이 깔려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이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씨는 하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씨의 주택이 일부 부서진 상황에 태풍이 불고온 비와 바람에 집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재심사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무주관내 보관 해제된 유해조수(해로운 짐승)구제용 총기에 대한 적정성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무주서는 관내 보관 해제된 총기 소지자 29명에 대해 이와 관련된 112신고, 고소·고발·진정 등 유무를 확인하고 포획 허가지역을 현장 점검해 총기를 활용한 포획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방화범, 법정 선다

34명 사상자 내... 전주지검 군산지청, 방화범 구속 기소

지난 6월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의 현장검증이 6월 18일 실시됐다.

내달 14~16일 ‘2018 전주독서대전’ 기록, 그리고 기억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2018 전주독서대전이 열린다.

전주시는 이번 전주독서대전의 주요 행사장인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전주향교를 각각 △책 나눔 공간 △책 문화 공간 △책 읽는 공간으로 나눠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메인행사장인 전주한벽문화관에서는 윤희길 소설가의 △연극으로 여는 개막식 △만나고 싶었습니다 등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읽다, 쓰다, 듣다, 놀다, 먹다, 찍다 라는 주제로 △정치 책 방대포의 ‘당신을 위한 책 처방’ △글쓰기 강사 은유의 ‘글쓰기의 최전선’ △이영미 대중 비평가의 ‘세상을 바꾸는 노래’ △박성우 시인의 ‘아이 마음, 어른 마음’ △한승태 작가의 ‘우리가 먹는 세상’ △이광수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하는 인문학’ 강연들이 음악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최기우작가의 강연과 출판사에서 초청한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 청년드림스테이지 오픈마이크가 진행되고 놀이마당에서는 라디오 공개방송, 전주의 이야기를 담은 이정환 작곡작가전 등 색다른 야외전시를 만날 수 있다.

완관본문화관 마당을 무대로 한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우천으로 연기

태풍 ‘솔릭’ 의 영향

‘제3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한반도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SOLIK)의 영향과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다.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은 축제 기간이 전국적으로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게 됨에 따라 당초 24일과 25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축제 기간을 다음주 금요일과 토요일(오는31일,9.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완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축제는 뜻하지 않은 태풍의 영향권에

전주시,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

전주시가 최근 전주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개별여행객 증가에 따라 이들의 여행편의를 위해 외국인 관광안내 콜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오목대관광안내소에 외국인 관광안내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 오는 9월 개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생존수영교육 · 레저스포츠’ 체험 실시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통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5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비 다문화가족 자녀 등 35명의 2018년도 문화교육지원사업 태권도반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및 레저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이뤄진 참여자들이 문화 예술 교육과 태권도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만드는 태권도 교실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산 비응함 한국해양소년단 해양환경장에서 수상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받았다. 또, 워터 슬라이드 체험 등을 통해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구조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